

## 임상의학 선도할 대표 침구전문서 침뜸을 생활의술로 발전시켜

침구경험방은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사람의 임상을 바탕으로 편찬하여 조선의학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조선의학서는 중국 의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 침구편이나 침구택일편집, 선조 때 유성룡이 쓴 침구요결 등도 거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침구서를

인용한 것이다. 침구경험방보다 30여 년 앞서 나온 동의보감도 임상의학 창출보다는 의학경전 재구성을 통한 집대성의 의미가 크다.

반면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침구술을 정리한 침구전문서로 중국 의학 경전에서 벗어난 조선 침구술이 독자적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침뜸 전

반에 대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하여 아프고 병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침구전문업종의 창설 이후 전문 영역이 확대되어 날로 백성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침구경험방 출간을 계기로 침뜸의술이 민중 구료에 침구치료가 효과적이고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침구요결 서문에 넘치는 애민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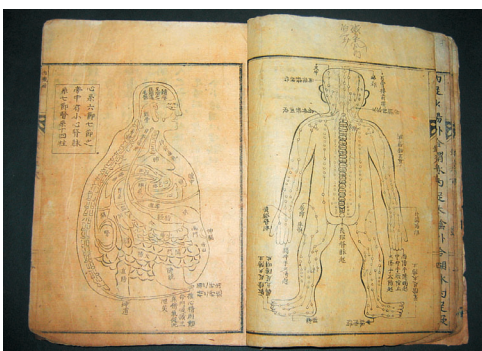
### 유성룡 “우매한 아낙네도 침뜸 할 수 있도록 할 터!”

1600년(선조 33) 명재상 유성룡이 ‘의학입문’이라는 명나라 의서의 침구편 부분을 정리하여 ‘침구요결(鍼灸要訣)’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침과 뜬은 효험이 빠르니 향리(鄕里) 사람으로 침놓는 법을 거칠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처방을 살펴 혈자리를 구하면 스스로 가히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아야 된다.”라며 침뜸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자신이 엮은 침구요결

에 대해 “각 경락(經絡)을 분류하고, 혈(穴) 자리 아래에 치료법을 두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보기만 하면 깨닫게 하여 달리 찾을 필요가 없게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장차 언해로 번역해 내어 우매한 아낙네라도 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침뜸을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자리 잡도록 하려 는 뜻을 피력했다.



「침구요결」은 유성룡 생전에 간행되지 못했고, 1901년 후손 오영(伍榮) 등이 목판본으로 펴냈다.

### 침의 허임 - 건강칼럼

## 의(醫)는 의(意), 생각이 열려야 병 논할 수 있다

경에서는 “사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기가 허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무슨 연유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질병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색이 정도가 지나쳐 바람, 차가움, 더위, 습함이 허하고 쇠한 것을 틈타 경락에 들어와서 영위(榮衛)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로지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침과 뜬으로 허한 것을 보하고 실한 것은 사

하여 각각 혈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자 푸른색이 많으면 통증이고, 검은 색이 많으면 풍비가 된다. 흰색이 많으면 한이고, 황적색이면 열이다. 한이 많으면 근육이 조여들고 뼈가 아프다. 열이 많으면 근육이 늘어지고 뼈가 마른다. 오한이 나면서 몸이 차가우면 냉(冷)이고, 오한이 나는데도 몸이 뜨거우면 열이다.

맥락은 기혈을 순환시켜 온 몸에 흐르는 것을 쉬지 않는

다. 그러므로 경맥이란 음양을 통하게 하여 몸을 영양하는 것이다.

의(醫)란 의(意), 즉 생각이라는 뜻이다. 생각이 잘못되고 막혀서 변화를 모른다면 함께 병을 논할 수 없다.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 그것이 손으로 나타나고, 뜻에 따라 융통하고 변화시켜 각각 그 경락을 따라서 양의 병은 음측에서 치료하고, 음의 병은 양측에서 치료하여야 하니 침놓고 뜬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시 설

## 침의청을 설치하라!

우리나라 의술을 대표할 침뜸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이 드디어 출판됐다. 침의들 중에서 으뜸으로 추앙받고 있는 침의(鍼醫) 허임(許任)이 일생동안 보고 들은 것을 궁리하여 손으로 시험해 본 의술을 정리하여 한편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사람의 임상을 바탕으로 편찬한 조선의 의술서이다.

지난 1613년에 출간한 동의보감에도 침구처방이 병증별 치료 방법 가운데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권인 침구편(鍼灸篇)에 침뜸 의학에 필수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동의보감은 의학경전의 재구성을 통한 집대성의 의미가 큰 책이다. 그 만큼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하였고, 명성도 높다.

이번에 나온 침구경험방은 또 다른 의미에서 동의보감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의 침뜸의학이 독자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은 대부분 중국의 의학경전에 의존해, 중국의서를 그대로 수입해서 쓰거나 재구성해서 엮은 것이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그렇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직접 임상을 하며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우리 의학계는 의학경전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풍토가 없지 않았다. 의학(醫學)이라는 학문은 의술(醫術)이 되어서 의료현장에서 쓰인다. 의학이 의술로 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온 몸으로 익혀야 한다. 이치를 궁구하고 그 원리를 터득하고, 심신을 바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의(醫)가 실현이 되고, 의술도 향상이 된다. 침뜸의학은 침의들에 의해서 의술이 되어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감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술에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책 내용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일생동안 고심한 것이다.

어릴 때 부모님의 병 때문에 의원집에서 일하며 의술을 터득한 허임은 20대에 임진왜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침과 뜬으로 덜었다. 그는 그 때 이미 의술이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내의원 침의로 천거되어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지금 인조까지 3대에 걸쳐 대궐을 드나든 우리시대 제일의 명의이다. 그런데도 허임은 늘 백성들 가운데서 인술을 베풀려고 했다. 틈만 나면 전국의 각 지방을 다니며 아픈 사람을 고쳤다. 우리는 그의 인술자로서의 정신을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의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인 침구전문서가 나온 데는 우선 침구전문업종의 정착이라는 의료제도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침구전문업종이 성종 이후 제대로 정착되어 침구의원들의 의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었다. 침의(鍼醫)가 제도권 내에서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침쟁이’가 ‘침구의원’으로 인정되어 침구분야가 전문영역으로 정착, 침뜸의술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침구경험방을 간행한 것은 임금께서 만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뜻을 받든 것이라고 이경석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의정 명으로 관찰사까지 동원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침구경험방을 인쇄해 낸 것이다. 그만큼 허임의 의술이 백성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하여야 할 것이며 없애거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침과 뜬은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침놓는 것과 뜬뜨는 것은 구비하기가 쉬우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이제 침구경험방이 나와서 증세에 따라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그 구제하는 바를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침구경험방의 간행을 계기로 앞으로 침뜸은 더욱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침과 뜬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침의청(鍼醫廳)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